

# IMF시대의 양록업

편집실

세계적 기업컨설팅회사인 매킨지는 최근 작성된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해, 현재의 극심한 경제위기는 한국정부의 개혁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매킨지가 본 한국경제 기상도는 금년 5월에 현재의 외환위기가 극복된다 해도 이것이 문제의 끝이 아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기업파산을 불러오는 신용위기라면, 다음에 올 위기는 경기침체에 따른 금융기관 폐쇄, 대기업의 파산을 몰고 오는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고, 이것이 대략 99년 5월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 매킨지의 분석이다.

그러나 이것도 위기의 끝이 아니다. 99년말부터 우리경제는 또다시 조정국면에 접어들어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통합이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노동인력의 이동도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 시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드디어 새로운 활로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는 대략 2~5년 정도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금융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데 5~1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는 점에

우리는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2003년 이후에 우리는 경제적 안정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인데, 우리 양록인들도 이런 스케줄에 맞춰서 투자나 경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어둠이 있으면 광명이 있다

IMF는 여러모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장 녹용은 팔리지 않는데 기름값, 사료값이 오르는 것은 심각하게 경영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우리는 새삼스럽게 IMF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녹용이 팔리지 않아 현금이 부족해서 돈을 구하려고 해도 돈이 없고, 또 이자를 터무니 없이 달라는 국면을 맞게 되면 정말로 우리는 IMF를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까지 전개가 되고 나면 양록인들은 자칫 자신감을 상실하여 정신적인 공황에 빠질 우려가 있다.

그러나 IMF상황이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어둠이 있으면 광명이 있고, 언덕이 있으면 내리막 길이 있듯이 IMF국면에서도 이 양면성이 엄연히 존재한다. 이것을 우리는 IMF의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다.

양록인들이 양록업의 경영의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원가의식을 심화시켜 건전한 경영상 확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IMF는 극복할 수 있는 시대적 한 상황일 뿐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어느때 보다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양록인 개인이 대응해야 할 것도 있고, 또 정부가 해야 할 것도 있다.

어느 것이든 관행적으로는 안될 것이기 때문에 개혁적 사고로 응하지 않으면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첫째, 경영자로서 의식무장이 돼야 한다.

경영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양록업은 사업이고, 양록인은 사업가」라는 의식을 확고히 해야 한다. 사업은 일정의 목적과 계획아래 행해지는 경영활동이다. 사업은 곧 이윤추구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창의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 양록업 기반다질 호기로 활용해야

둘째, 정보마인드를 확고히 가져야 한다.

정보는 곧 「돈」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정보는 「투자(돈, 시간, 열성)」를 통해 얻을 수 있다. 특히, 지식정보는 생존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경영자의 올바른 깨달음의 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셋째, 애그리마케팅 지향경영을 해야 한다.

지금까지 양록인은 생산만 하면 그런대로 잘 판매됐다는 의식이 강했다. 또한 마케팅에 대한 생각은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소홀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이제는 생산도 마케팅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실행하는, 마케팅 우선 경영체제를 확립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경영을 해 나가기가 지극히 어렵다.

특히 마케팅 계획의 수립에는 양록농가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려움이 많을 수 밖에 없다. 「생산자」와 「지역 행정기관」, 그리고 「생산자 단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넷째, 마케팅 지향의 경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내 상품이 최고라고 우겨봐야 소용없다. 소비자가 원하는(품질, 가격 등) 상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팔 수가 없다. 또 생산과 동시에 서비스(교환 등)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 이는 생산계획 단계부터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기가 몹시 어려울 수도 있다.

IMF와의 주요합의 내용에 따르면, 정책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농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책금융은 유지하되, 이에 따른 이자손실은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범위가 확대되거나 면제가 축소된다. 비과세·감면 등의 축소에 의한 법인세 과세기반이 확대되며, 경상지출의 삭감, 특히 민간기업에 대한 지원이 삭감돼야 한다. 결국 IMF위기 극복의 핵심주체는 농업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양록인 스스로도 원가절감 등의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절대 절명의 시기임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하는 안일한 사고방식으로 양록업을 경영하는 양록인은 머지않아 퇴출되고 말 것이다.

IMF체제는 국내 양록업을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과 동시에 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호기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에 자구노력을 통해 국산농용 판매활로를 개척하지 못한다면 국내 양록업은 더 이상 비전이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한의약업소에 국산농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수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IMF와 우리농업, 한국농어민신문 엮음, 1998.2.25>